

대한 양계협회

소식

'97 제3차 이사회 및 임원연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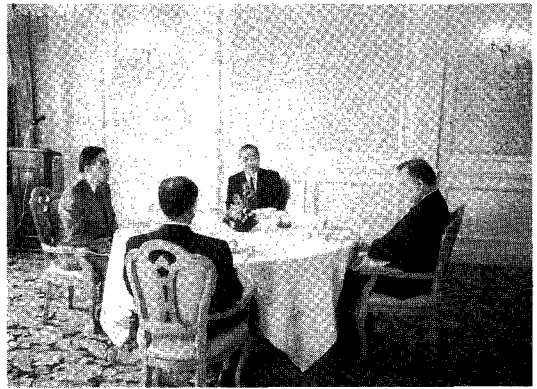
'97 제3차 이사회 및 임원연수회가 지난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안성에 위치한 엄마목장 청소년수련원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에 이어 '개방화시대의 양계산업 발전방안 및 당면현안에 대한 토의가 마련되어 임원들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97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 보고 및 협회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이어 부의안건이 논의되었다. 부의안건으로는 '97한국양계박람회 개최결과 보고, '97한국양계박람회 평가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업종별 분회설치 승인(안)이 보고 및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설립, 승인된 분회는 논산채란분회(분회장 장동운)로 논산과 공주 등지에서 채란업을 하는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양계박람회 확대 개최

'99한국축산박람회로 명칭 변경키로



분회를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돈협회 등 3개 단체장 및 본회 오봉국 고문(전 양계박람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전축종에 걸친 종합적인 박람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99년 개최 예정인 한국양계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한국축산박람회로 명칭을 변경,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개최시기는 '99년 11월 농업인 대회 전 후에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축협중앙회, 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곧 추진위원회를 구성기로 결정하였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업무 처리요령중 일부 개정 건의

본회는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코자 정부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요령”으로는 닭고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킬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이를 시정해 줄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 다 음 -

가. 요령 제2조(정의) 제5호 부문

(1) 요령 제2조(정의) 제5호에 단순가공식품이라 함은 농수산물 등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변경시키거나 이와같이 변형, 변경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하여 만든 제품(부형제와 첨가물을 넣은 경우를 제외함) 또는 이들 제품에 허가를 받아 제조된, 조미식품 등을 포장된 상태로 첨부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바

(2) 아시는 바와 같이 닭고기 가공의 경우는 부형제와 첨가물 등을 넣지 않고는 가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타육류에 대한 가공품도 거의 같은 실정일 것임)임에도 앞의 (1)열의 경우와 같이 “부형제와 첨가물”을 넣은 경우는 단순가공품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조치로서 이로 인하여 닭고기 가공품에 대하여는 요령에 의한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일뿐 아니라 생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이의 시정을 강력요청하고 있으니 요령 제2조(정의) 제5호의 단순가공품에 대한 문안중 괄호내에 표기한 “부형제와 첨가물을 넣은 경우를 제외함”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령 제3조(원산지 표시 대상품목)부문

(1) 근자 국민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닭고기 가공제품(별첨 제품별 내용참조)이 개발

· 보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닭고기 소비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닭고기 가공제품의 원료를 대개의 경우 수입산 닭고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산 닭고기를 이용한 가공제품의 생산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등 강력한 방법으로 국내산 닭고기와의 차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국내 양계농가 피해는 물론 육계산업 기반마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큼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령 제3조 별표 “1”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제3호 농산물 가공품 대상품목중에 식육제품으로는 햄류, 소세지류, 베이컨류와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국산과 수입농산물의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닭고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없는 것이라 생각되며(물론 햄류, 소세지류에 닭고기를 일부 사용은 하나 대개 노계육으로 미세한 양에 불과함)이로 인하여 닭고기 가공품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상실케 되며 닭고기 가공업자는 국민정서를 의식치 않은채 닭고기 수입에만 열을 올려 육계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므로 “요령”에 모든 “닭고기 가공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현행기준의 3배 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전국 종계·부화인 대회 개최





'97 전국 종계·부화인 대회가 지난 23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종계·부화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닭고기 소비부진과 생산과잉으로 육계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는 등 육계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종계·부화인들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종계·부화인 대회외식에 이어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임시총회, 종계·부화 경기전망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운동장에서 친선 족구대회가 펼쳐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지소장 정행기)에서 직원들이 참석하여 양계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등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난가현실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난가조절위원회 심준식, 장대석씨 선출

최근 계란의 농장수취가격이 고시가격과 20

원 이상의 큰폭을 이루면서 계란유통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생산자들과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난가현실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생산자측에서는 기존에 난가조절을 맡아 힘써왔던 구천석 위원장, 천강균 사장, 이두형 사장이 최근의 난가조절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난가조절위원회에 심준식(천호분회), 장대석(안성분회) 사장이 선출되어 난가조절에 대한 사항을 채란분과 위원들로 부터 위임을 받았다.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은 생산자와 상인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20원 이상의 고시가격 차이가 이어질 경우 국내 양계산업은 존재의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 전제하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생산자들은 두 단체로 분열된 상인단체의 일괄성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계란고시를 양계협회로 창구일원화를 해야할 것임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상인들이 임의로 난가를 조절하여 FAX 등을 통해 알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생산자들과 협의하여 직장기 제도를 정착시키고 DC폭을 줄여나 가는데 새로운 난가조절위원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협의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10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고시가 상인들의 일방적인 가격조작으로 다운폭이 커지면서 유통에 큰 혼선을 가져옴에 따라 이를 주도한 상인연합회(회장 차성균) 가격조절 가담자들을 가격조작을 통한 담합행위 근절차원에서 고발조치키로 결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난가고시를 맡고 있는 고시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미 계란생산이 과잉상태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탄력있는 난가고시에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97 제2차 검정위원회 개최

제50회 육용계, 제30회 산란계 최종 검정성적 검토

'97 제2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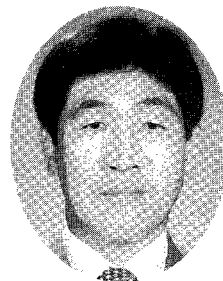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종란수집부터 검정과정 및 최종 검정성적 검토에 이르기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검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검정 출품업체(농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진행은 1차 검정위원회 회의록 요약보고,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제50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검토, 제30회 산란계검정 최종성적 검토, 제31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 검토, 종계 일반검정 심의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50회 육용계검정에서는 올여름 가장 무더운 시기에 검정이 이루어져 계군에 따라 폐사가 많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으나 예년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최근 출하일령이 빨라지고 있어 5주부터 성적을 최종 발표자료에 넣기로 하였다. 그리고 생산지수가 실제 생산농가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처리키로 하였다.(50회 육용계 검정실적 163페이지 참조)

본회 논산채란분회

분회설립



◁ 장동운 분회장

본회 논산채란분회(분회장 장동운)가 지난 17일 개최된 본회 이사회에서 분회설립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정식업무에 들어갔다.

논산분회는 논산과 공주 등지에서 채란업을 하고 있는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정천리 311-3번지

전화 : (0416)52-4029

팩스 : (0461)53-9960